

코스피 7493.18 (-488.23)	코스닥 1129.82 (-61.27)
금리 (연이자율) 3.766 (+0.112)	환율 (원/달러) 1497.50 (+6.50)

명품 아니면 1000원 생필품 'K자형 소비' 고착화 04



국가 위기 된 삼전 파업... 政, 긴급조정권 검토

8000 찍은 코스피에 추가상승 vs 차익 실현 연금 자산배분도 관심

오늘 삼성전자 노사 최후담판
이재용 회장 “삼성, 멈춰선 안돼 우리는 한가족, 최선 다해보자”
김민석 총리 “하루에 1조 손해 파업시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



北 내고향여자축구단 방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하고 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 출전하는 북한 여자 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이 /뉴스

삼성전자 노조의 올해 임단협 '총파업 불모'가 단순한 대기업 노사갈등 상황을 넘어 한국 경제 근간을 흔들 정도의 '국가 비상사태' 수준으로 비화하고 있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에 앞서 18일 열릴 노사간 대화자리는 K-산업은 물론 국민 경제의 부침,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노사 모두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받아들여 타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불가피할 경우 긴급조정 명령 등 최고수준의 대응을 공식적으로 예고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하며, 총파업 전 노사가 마주 앉는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정부와 사측의 거듭된 요청을 노조측이 수용해 닷새 만에 회의가 열린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속에서 삼성전자가 사측은 15일 대국민사과문을 낸 데 이어 “노조와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며 노조를 찾았다.

이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출장에서 급거 귀국해 현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삼성이 멈춰선 안 된다”고 호소하며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회장은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몸 한가족”이라며 직접 메시지를 던졌다. 이 회장은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보자”고 강조하며 노조의 협력을 호소했다. 삼성전자가 처한 사상 초유의 위기가 경영진과 노조의 뜻만이 아니며 책임의 최전선에 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metro

m-커버스토리

‘성과급 제도화’ 요구, 조선·車 등 산업계 전반 확산

원·하청까지 ‘일파만파’

소액주주 ‘배당권 침해’ 대응 예고
노사 2사 구도 → 3각 충돌로 확산

삼성전자발 성과급 갈등을 시발점으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 요구가 반도체를 넘어 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전 산업계로 번지고 있다. 나아가 노동계의 제도화 요구에 맞서 소액주주단체들이 배당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노사 2사 구도가 주 주 가세로 3각 충돌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하청 전선 확대까지 우려되며 산업계 전반의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경고를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통해 회사가 초과이익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며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금액의 상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 자체 추산의 반도체부문(DS) 올해 영업이익을 약 300조원선으로 가정할 경우 성과급 재원은 약 45조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주주배당액 11조1000억원의 3배를 넘어선다고 같은 기간 연구개발비 37조7000억원도 초과하는 규모다.

사측은 기존 경제적부가가치(EVA) 기반 초과이익성과급(OPI) 체계를 유지하되 상한 없는 특별포상 제도를 신설해 경

쟁사 이상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내놓았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조 측은 총파업 강행 시 하루 1조원씩 최대 약 30조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필수인력 유지와 유회 생산 등 변수가 많아 단 순 계산이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3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파업도 큰 변수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파업 사태 해결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한가족”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것을 계기로 노사 모두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서 극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4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metro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희 삼성전자의 노사 문제로 국민들과 주주, 그리고 정부에 큰 부담과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성취가 커질수록 우리 사회가 삼성에 거는 기대가 더 엄격하고 더 커지는데,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측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금쯤은 매 순간마다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회사 내부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노사가 한마음으로 화합해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사업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반도체는 다른 산업과 달리 24시간 쉬 없이 공정이 돌아가야 하는 장치 산업이므로 결코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뢰 자산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저희 사측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보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노동조합을 한 가족이자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입니다.

노동조합도 국민들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삼성전자 사측 일동

대표이사 부회장 권영현, 대표이사 사장 노태문, 김수목, 김용관, 김우준, 김원경, 남석우, 마우로 포르치니, 박승희, 박용인, 박홍근, 백수현, 송재현, 용석우, 윤장현, 이원진, 최원준, 한진만